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記述學)과 아시아 맥락에서의 성경 번역

라우런스 드 프리스*

정창욱 역**

1. 서론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이라는 용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언어 사용의 모든 형태들을 가리킨다: 즉, 문화적 관습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구성하기도 하는 언어 사용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폴레이(W. A. Foley)는 언어학적인 관습들이 더 넓은 문화적인 관습들이나 신념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범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상대주의(communicative relativism)에 대해 이야기한다.¹⁾ 문화적인 관습들을 반영하고 구성하는 언어학적인 형태의 한 예는 인사말이다. 폴레이는 서부 아프리카의 울로프(Wolof) 인사말과 오스트레일리아 인사말을 비교한다. 비록 이 두 인사말들이 언뜻 보기에 유사한 사회적인 기능들을 가진 동등한 사회적 상황들 가운데서 사용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 사건들이다. “하나의 인사말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공 토론장으로서 언어학적인 관습들을 통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동등성의 문화적인 관념들 혹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비동등성의 문화적 관념들을 규정하기 위한 장소이다”²⁾. 울로프는 세네갈에 있는 모슬렘 계급 사회인데 그곳에서 인사 의식들은 대화자들 사이에 사회적인 신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³⁾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에서 연구된 다른 주제들은 그라이스(Grice)의 격률들, 공손과 존대법, 사회적 직시(直視), 장르, 그리고 개성의 언어학적인 구조 등의 다른 문화들 속에서의 변형들이다.

번역자들에게 있어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 혹은 문화적 화용론의 영역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영역들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또한 독일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역 컨설턴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

** 총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1) W. A. Foley, *Anthropolog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7), 259.

2) *Ibid.*, 259.

3) J. Irvine, “Strategies of Status Manipulation in the Wolof Greeting,” R. Bauman and J. Sherzer, eds.,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167-191.

어나 영어 같은 이웃하거나 관련된 언어들로부터, 혹은 그 같은 언어들로의 번역들에 있어서 잘 드러난다.⁴⁾ 번역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전달자들로서 원문과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 대상사이를 중재하는 방식은 스키포스(skopos, 목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고에서 나는 첫 번째로, 번역들의 스키포스(skopos) 혹은 기능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한 성경 본문, 곧 룻기를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의 구체적인 형태의 한 예로 제시할 것이다. 그 목적은 성경 번역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들과 네덜란드의 대상 공동체들을 중재했던 방식을 스키포스(skopos) 요소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나는 아시아 맥락들에서의 성경 번역과 아시아 성경 번역본들에 있어서 이러한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다루어진 방법들에 관심을 돌릴 것이다. 공손과 존대법의 언어학적 형태들의 영역은 아시아 맥락에서 성경 번역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중재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복잡한 번역 이슈를 형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아시아 언어들에서 공손과 사회 중심주의, 그리고 존중의 문화적인 관습들과 가치들을 정교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2. 번역 기능들과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

2.1. 번역들의 스키포스(skopos) 또는 대상 기능

대부분의 번역자들에게 하나의 번역본이 그 원 본문의 모든 측면들을 결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진부한 말에 가깝다. “원문의 모든 요소들에 동시에 근접하는 것은 최소한 거의 언제나 불가능하다”⁵⁾.

번역자들은 선택해야 하며, 그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원 자료의 어떤 측면들은 상실된다. 게다가, 비록 어떤 번역들은 원문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 제외되어 버리기는 하지만, 그 본문을 번역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원문들이 있는 까닭에 여전히 너무도 많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어떤 본문이건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발하게 분석된다 할지라도 원 본문들은 가능한 해석들과 번역들에 대

4) J. House, “Cross-cultural Pragmatics and Translation,” A. Neubert and Gregory M. Shreve, eds., *Translation as Text*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2).

5) J. Ortega y Gasset, “The Misery and Splendor of Translatio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Esther Allen, trans. (London: Routledge, 2000), 62.

해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성경과 같은 고대 원문들의 경우에 그렇다.

번역자들은 선택과 번역의 고유한 성격인 ‘잠정적 결론(underdetermination)’의 문제들을 그들의 원 본문들 밖에 있는 기준들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한다. 그들이 인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외적인 기준들은 번역학에서 스키포스(skopos) 혹은 대상 공동체에서의 번역의 기능으로 집합적으로 언급되는 한 세트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에서 나온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πάντες(all) ζητοῦσίν(seek) σε(you) 같은 단순한 그리스어 절을 생각해 보라. 네덜란드어 성경인 『새 번역』(Nieuwe Vertaling)은 이 절을 ‘Allen(모든 [사람들]이) zoeken(찾는다) u(너를)’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이 번역은 원문의 한 가지 측면 곧 그리스어 절의 구문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리스어 동사가 이 구절에서 가지고 있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측면을 잘 드러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번역자들이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측면을 번역하기로 결정한다면, 네덜란드어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으며, 그 가능성 모두는 원 본문에 의해서 동등하게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어 성경인 『좋은 소식 성경』(Goed Nieuws Bijbel)은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조동사인 ‘견다’를 나타내는 lopen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계속 찾고 있다’로 번역하고 있고, 『새 성경 번역』(Nieuwe Bijbel Vertaling)은 또 다른 구문을 가지고 있다(‘이다’ [be]동사에 해당하는 zijn의 한 형태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성경 번역들은 동시에 그리스어 절의 구문을 반영해 줄 수는 없다.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측면과 그리스어 원문의 구문을 하나의 네덜란드어 절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번역자들은 원문의 어떠한 측면이 번역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한다(선택성).

동시에 이 예는 ‘잠정적 결론(underdetermination)’의 문제를 보여 준다: 그리스어 원 본문은 다양한 네덜란드어 번역들을 정당화 시켜준다: ‘모든 사람이 너를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계속 찾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번역자들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다양한 적법한 가능성들과 마주치며, 어느 번역이 ‘최상’인지를 말해주기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원 본문들과 마주친다. 원 본문이 침묵할 때, 번역자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그 답은 번역의 대상 또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떠한 본문을 번역자가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번역을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상대하고자 하는 그 또는 그녀의 청중이 누구인가?

스코포스(skopos)라는 용어는 한스 버미르(Hans Vermeer)에 의해서 번역 연구에 소개되었는데,⁶⁾ 그는 번역을 행동으로 보았고, 스코포스(skopos)의 개념을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선택이나 ‘잠정적 결론(underdetermination)’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보다는 모든 인간 행동의 내재적인 목적론적 본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크리스천 노드(Christiane Nord)에게 있어서 “번역은 대상 본문의 의도적 혹은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명확하게 규명되는 하나의 주어진 원 본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적 대상 본문의 산물이다.”⁷⁾

이제 번역들의 선택성과 ‘잠정적 결론(underdetermination)’을 고려해 볼 때, 번역자는 마가복음 1장 37절을 네덜란드어로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중에 어떤 것으로 번역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동등성 고려(equivalence consideration)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 번역 모두 원 본문의 어떤 측면들에 상응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떠한 번역도 원 본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번역자들은 스코포스(skopos) 고려사항들을 계산에 넣어야만 할 것이다. 다양한 네덜란드어 성경 번역들 사이에 차이점들은 그들의 스코포스(skopos)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어 『좋은 소식 성경』(Goed Nieuws Bijbel)은 소위 말하는 공통 언어 스코포스(skopos)를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번역본이다(외적인 기능). 따라서 이 성경의 마가복음 1장 37절의 번역 ‘모든 사람이 너를 계속 찾고 있다’는 일반 네덜란드어에서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으나 그리스어 구문의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반면에 1951년판 『새 번역』(Nieuwe Vertaling)은 교회 내적인 스코포스(skopos)를 가지고 있으며, 영감(inspiration) 신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는데,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된 본질을 원문의 언어 형태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번역하도록 이끌었는데 이 번역은 이 구절에서 ‘성경(Holy Scriptures)’의 형태에 가까이 간 것이며 좋은 네덜란드어이기도 하다.

원 본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some) 당신을(you) 찾는다(seek)’와 같은 몇몇 네덜란드어 번역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기로, 스코포스(skopos) 접근은 반드시 원 본문들의 지배권을 빼앗는 극단적 상대주의의 한 형태는 아니다. 노드를 따

6) H. J. Vermeer,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Andrew Chestermann, trans. (London: Routledge, 2000), 221.

7) Christiane Nord,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s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28.

라서,⁸⁾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실 개념(loyalty notion)과 결합된 스키포스(skopos) 접근을 사용한다. πάντες ζητοῦσιν σε를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다,’ 또는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는다’로 번역하는 것은 저자의 명백한 전달 의도에 불성실한 것이 될 것이다. 명백한 의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성경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동의하는 의도나 의미를 나타낸다. 스키포스(skopos) 요소들이 어떠한 결정에 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바로 원 본문이 다양한 해석들과 번역들을 정당화시켜 줄 때나 혹은 번역자가 대상 언어에 의해 어떤 하나의 번역으로 표현될 수 없는 원문의 두 측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때이다.

우리는 기능이나 스키포스(skopos)에 대해서 번역을 위한 어떤 스키포스들(skopoi)이나 기능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나 번역자들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사는 어떤 공동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원할 수가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번역들은 대상 공동체들에서 다른 기능들을 획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들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체의 기능적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획득된 기능들). 예를 들어, 소위 어떤 공통 언어 성경 번역본들은 외부적인 기능들을 위하여, 곧 성경의 메시지를 교회 밖에 있는 현대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던 더 오래 되고 문자적인 번역본들을 사용하던 교회 성도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공통 언어 번역 성경들을 개인적 성경 읽기나 가족 성경 읽기를 위하여 사용하며, 어떤 교회 공동체들에서는 공통 언어 번역 성경들이 교회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체들은 번역 성경들에 대하여 기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 본문과 더불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천주교, 오순절파 또는 그리스 정교와 같은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들이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행하는 성경 번역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의도된 기능과 기대되는 기능이 충분히 중복되는 것은 다양한 공동체들 안에서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어떤 공동체들에 있어 번역은 하나님의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는) 초월적인 다르심(ootherness)을 반영해야 하며, 번역은 주로 본문이 공포되어지고 그 본문의 공적인 낭송이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 되는 예배 의식에서 그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의 전달이 그 목적이 아닌 것이다. 다른 공동체들은 성경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는데, 그 메시지는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전달되어야만 한

8)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 123.

다.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 Gerard Genette는 주석들이나 서문들, 제목들, 헌정사들과 같이 어떤 본문에 첨가되는 요소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파라텍스트(paratext)라는 용어를 주조해냈다.⁹⁾ 그는 이 용어를 저자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그러한 첨가물들을 지칭하는 데 제한했다. 파라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번역의 한 측면이다. Pym과 함께¹⁰⁾ 우리는 번역본들을 파라텍스트 요소들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번역자와 원 저자(들)사이를 구별하는 본문들의 한 장르라고까지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텍스트 요소들은 아마도 어떤 다른 형태의 본문에서보다도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에 있어서 본문은 각 장과 문단의 제목들과 함께, 장들과 절들 그리고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주해들이 있는 것이다. 서문, 지도들, 해설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성경의 각 권들은 제목을 부여받고 독특한 순서로 제시된다. 비록 파라텍스트 요소들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성경 본문을 포함하여 고대에 쓰여진 원문들은 현대의 성경 번역본들에 비하자면 파라텍스트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파라텍스트 요소들은 종종 성경 번역본들의 기능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시들을 제공해 주는 데,¹¹⁾ 비단 서문에서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본문이 문단들에서 구성되어지는 방법들에서도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교회적인 역할을 가진 번역들은 예배의식에서 유래한 문단 구분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들은 한 해의 어떤 시기들에 읽힌다. 성경 문헌의 문학적 구조를 표현하려고 시도하며, 대상 문화에서 문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대 성경 번역본들은 아주 다른 문단 구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분들은 본문의 문학적, 수사학적인 구조로 독자들을 인도해 준다.

성경 번역들의 스키포스(skopos)의 핵심은 신학적이며 해석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 요소들은 주어진 공동체를 위한 ‘성경’의 개념을 정의해 주며, 그 공동체의 특별한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복잡한 그리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불분명한 ‘성경’의 개념은 성경의 새로운 번역의 대상이나 목적을 규정한다. 그와 같은 성경의 개념과 성경 번역들의 결과적인 기능들을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 기능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은 그리스 정교나 복음주의적 전통들과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 전통들- 비록 지역적 스키포스(skopos) 요소들이 이

9) G. Genette, *Ps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Éditions de Seuil, 1981).

10) A. Pym,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1998).

11) L. de Vries, “Paratext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W. F. Smelik, A. den Hollander and U. B. Schmidt, eds., *Paratext and Met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oston: Brill Publishers, 2003), 176-193.

러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번역 기능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전통들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유대교적, 기독교적인 공동체들은 그들의 번역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성경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창조적인 번역 역사는 원문 전통들과 성경에 포함되도록 하는 책들의 선택, 성경의 인간 저자들과 신적인 저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 그리고 교회/전통과 개별 신자 그리고 성경 번역 사이의 사역의 해석학적 질문들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들을 포함하고 있다.

스코포스(skopos) 접근법은 우리로 하여금 번역들에 있어서 본문의 변화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분의 본문의 요소들, 곧 번역들이 작동하는 관계적이고 관습적인 맥락들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준다. 스코포스(skopos) 접근법은 특별히 성경 번역학을 위해서 적합한데, 그 이유는 주요 언어로 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번역 결정들이 원 본문들에 관하여도 또한 다른 번역본들에 관하여도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번역 결정들에 대한 관찰들은, 내가 지금 룻기의 네덜란드어와 영어 번역 성경들과 함께 예증하려는 것과 같이, 대상 공동체들에 있어서 번역의 다양한 역할들과 연결될 수 있다.

2.2 룻기에서의 스코포스(skopos)와 사회 중심적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

개성의 지역적 개념들은 자아 중심적이며 사회 중심적인 사상들과 관련하여 문화 인류학에서 다루어져 왔다.¹²⁾ 사회 중심적인 공동체들에서 개인들은 주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들에 따라 이해되며,¹³⁾ 개인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 조직망의 정점을 이룬다. 두 가지 점이 즉각적으로 명료하게 되어야만 한다. 첫째, 다양한 사회 중심적인 공동체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들은 사회 중심적인 이해와 사상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끈다.¹⁴⁾ 둘째, 개성의 사회 중심적인 개념들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특성의 잘 발달된 자각과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뉴기니의 Korowai와 다른 일류 평등주의 공동체들은 개인의 육체적인 힘과 웅변의 힘에 대한 강조를 권위를 성취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으로 개성의 사회 중심적인 개념과 결합시킨다.¹⁵⁾

12) C. Geertz, *Local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1983).

13) Foley, *Anthropological Linguistics*, 269.

14) 참조, M. Rosaldo, "Towards an Anthropology of Self and Feeling," R. Shweder and R. Le Vine, ed.,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U.P., 1984), 137-157.

15) L. de Vries and G. J. Van Enk, *The Korowai of Irian Java. Their Language in its Cultural*

개인의 사회 중심적인 개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에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스웨달(Shweder)과 벌니(Bourne)는 인도의 오리야스(Oriyas)가 어떻게 개인들을 경우와 맥락 접근법에 의해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지적하는데, 이 접근법에서 한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특징지어진다.¹⁶⁾ 한 여성이 우호적인 것으로 묘사될 때에, 이것은 ‘그녀는 명절 때에 우리 가족에게 케이크를 가지고 온다’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며, 혹은 공격적인 남성을 자신의 이웃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대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비록 개인적인 이름들이 사용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친족관계나 혈통, 직업, 계급 또는 공동체에서 그들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측면들에 의해서 언급되거나 불린다. 어떤 사회 중심적인 공동체들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대단히 강해서 개인적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맥락 속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르츠(Geertz)는 자아 중심적인 개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튀어 오르고 독특하며 다소 통합된 동기를 부여하는 인식의 우주로, 자각과 감성과 판단과 행동의 역동적인 중심으로 개인을 보는, 하나의 독특한 완전체로 조직된, 그리고 대조적으로 그와 같은 완전체들에 대항하여, 또한 그것의 사회적이며 자연적인 배경에 대항하여 세워진 서구의 개인에 대한 개념.”¹⁷⁾

네덜란드 사회에서, 한 개인을 그 또는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날카롭게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 개인을 역할들과 지위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독특하고 자발적인 개인의 근본적인 가치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개인의 이름들을 교환하며 그러면 지위나 관계의 용어들보다도 이 이름들이 사람들을 부르고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약 성경은 강력한 사회 중심적 공동체들에서 기원한 저서들의 모음이다. 그 공동체들에서 한 개인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역할들과 관계들의 관점과 이러한 역할들과 관계들에서 따라 나오는 특권들과 의무들의 관점에서 보아진다. 혈족관계와 가계가 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인 까닭에 그 개인이 태어난 부족이나 민족, 혈통, 가족 또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과의 혈족 관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족보 외에도, 출생지나 직업 혹은 업종, 정치적인 소속 또는 개인의 사회적

Context (Oxford; New York: O.U.P., 1997).

16) R. Shweder and E. Bourne,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R. Shweder and R. Le Vine, ed.,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U.P., 1984), 158-199.

17) Geertz, *Local Knowledge*, 59.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사항들이 언급되는 수도 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와 룻이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라(2:19-22). 그 이야기에서 그 시점에 독자들은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룻기 2장 19절에서 2장 22절, 이 네 구절에서 나오미와 룻을 그들의 혈족의 가족관계의 관점에서 네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 관계 언급들과 적절한 이름 언급들을 결합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사회 중심적인 참여자 신분 확인은 구체적인 문화적 관습들에 젖어 있는 실제적인 형태의 한 예이다. 이 경우에 있어 관련 있는 문화적인 관습은 그 개인의 사회 중심적인 개념들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폴레이의 말로 표현하자면, “개인들은 크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들이나 것으로 이해된다. ...”¹⁸⁾ 내가 살았던 뉴기니의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은 개인들을 무엇보다도 사회 안에서 갖는 그들의 관계적 지위의 관점에서 보았다. 족보들과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들, 인종적, 정치적 그룹들의 회원신분은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하며 참가자 취급의 실제적 고려는 이러한 문화적인 관습들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한 개인의 부족과 씨족, 가족 등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언급은 주요한 네덜란드어 본문들이 선택하고 있는 군더더기 말을 피하는 실용적 고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불필요하며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위대한 소식 성경』(Groot Nieuws Bijbel; GNB, 1988)은 2장 18절과 2장 23절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혈족의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두고 있는 반면에 2장 19절에서 2장 22절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네 번의 언급은 제거해 버린다. 『새 번역』(Nieuwe Vertaling; NV, 1951)은 히브리어 원문의 참여자 언급들을 그대로 따른다.:

NV2.19a:	zei	haar	schoonmoeder	tot haar
	말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GNB 2.19a:	vroeg	Noomi..		
	물었다	네오미가		
NV2.19b:	vertelde	ze	haar	schoonmoeder
	말했다	그녀가	그녀에게	시어머니에게

18) Foley, *Anthropological Linguistics*, 269.

GNB 2.19b:	vertelde	Ruth		
	말했다	룻이		
NV2.20:	zei	Naomi tot	haar	schoondochter
	말했다	네오미가-에게	그녀의	며느리에게
GNB 2.20:	zei	Noomi		
	말했다	나오미가		
NV 2.22:	zei	Naomi tot	Ruth,	haar schoondocht
	말했다	나오미가--에게	룻,	그녀의 며느리에게
GNB 2.22:	zei	Noomi		
	말했다	나오미		

이 구절들에서 시어머니/며느리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위대한 소식 성경』(Groot Nieuws Bijbel)은 그 이야기를 『새 번역』(Nieuwe Vertaling)에 반영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의 더 사회 중심적인 참여자 취급과는 대조를 이루는 네덜란드 방식으로 말하여진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린다. 『위대한 소식 성경』(Groot Nieuws Bijbel)은 네덜란드어 주요 본문처럼 들리지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개인 언급들의 사회 중심적인 실제적 고려가 히브리 문화적 관습들 속에 젖어 있는 한 『위대한 소식 성경』(Groot Nieuws Bijbel)은 부분적으로 룻기 이야기 뒤의 세계와의 그러한 연결을 단절시켜 버린다. 그와 같은 개인 언급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중심적인 사상은 베누티(L. Venuti)의 용어를 빌리자면,¹⁹⁾ 부분적으로 ‘토속화된다.’ 그리고 ‘이국적인’ 사회 중심적 가치들은 어느 정도까지 대상 공동체의 더 친숙한 자기 중심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표현된다. 하티姆(Hatim)과 메슨(Mason)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화하며 중립화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²⁰⁾

『새 번역』(Nieuwe Vertaling)의 다섯 구절에 나타나는 룻과 나오미 사이의 혈족 관계에 대한 다섯 번의 언급은 분명하게 주요 본문들(primary texts)이 취하고 있는 네덜란드어 군더더기 말 규범들을 위반한 것이며, 실제적인 간섭을

19) L.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20) Basil Hatim and Ian Maso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Routledge, 1997), 145.

만들어 내어, 최소한 어떤 청중들의 귀에 그 본문이 낫설게 들리게 만든다. 이 마지막 특징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언어들의 실제적인 구성요소의 유연성과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새 번역』(Nieuwe Vertaling)에 있는 룻의 네덜란드어 이야기를 2차적인 본문으로 인식하는 어떤 청중들에게 그 이야기의 낫설음은 역설적이게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개인 언급의 수준에서 원문을 따라 흉내 내는 전통은 그와 같은 전통 속에서 자란 교회 사람들과 교육받은 세속 청중들이 주요 네덜란드어 본문들로부터 유래한 번역과 관련된 실제적인 규범들을 보류하고,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혈연 관계에 대한 다섯 번의 ‘군더더기의’ 언급들을 부적당한 네덜란드어로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들의 언어학적 반영, 곧 다른 생활 방식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반영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룻기 1장 4절은 우리에게 룻이 모압 출신임을 말해 주고 있으나, 1장 22절, 2장 21절, 그리고 4장 10절도 그렇게 말해준다. 사회 중심적인 관점에서, 룻의 모압 기원은 그녀의 정체성과 그녀의 정체성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 요소이다: 구약에서 자주 사회 중심적인 정보의 언급이 영적이며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룻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압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경에 대항하여 묘사되고, 그 배경에 대항하여 룻은 그 이야기에서 그녀의 정체성의 발전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1장 17절에서 하게 된다: ‘당신(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 여성 룻이 그녀의 이스라엘 시어머니와 그녀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며,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다.

원문이 언급할 때마다 룻의 모압 기원에 대해 반복하는 것은 네덜란드어에서 다소 군더더기의 말처럼 들리는데 특별히 1장 22절에서 그 기원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2장 2절에서 언급할 때 그렇다. 1988년판 『위대한 소식 성경』(Groot Nieuws Bijbel)에 보면, 2장 2절과 2장 21절의 ‘모압 여성’이라는 동격이 사라져 버린다. 1장 마지막 구절에서, 『위대한 소식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룻의 모압 기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대한 소식 성경』번역자들은 모압 기원을 두 번째 장의 2절과 21절에서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네덜란드어의 군더더기의 말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느꼈다.

이러한 번역들이 그 대상 공동체들 안에서 갖는 다른 기능들과 관련하여 원본문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과 대상 공동체들 사이를 중재하는 다른 방식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위대한 소식 성경』과 같은, 룻기의 공통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사회 중심적 개인 언급들을 대상 청중의 자기 중심적 개인 언급 관습에 조정하여 맞추고 있으나, 문자적이며 문화적인 경험으로서 고대의

문학 작품에 접근하려고 룯기의 번역을 사용하는 다른 청중들이나 교회에서 성경 낭송을 듣는 청중들에게 번역은 원문의 사회 중심적인 맛을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겨난 간섭(interference)은 그러한 사용 맥락에서 이 청중에게 미칠 다른 전달의 영향을 소유하게 된다: 그들은 개인 언급들의 ‘낮설음’을 그들과는 다른 문화적 관습의 반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아시아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과 성경 번역

많은 아시아 언어 공동체들은 화자와 대상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표현을 위하여 풍성하고 정교한 언어학적 수단을 발전시켰다. 그와 같은 언어의 관습은 이러한 공동체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고 구성하며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의 핵심을 형성한다. 많은 아시아 언어들(한글, 발리어, 자바어)이 존경, 경의, 연대의식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말하기 수준들의 정교한 체계들을 발전시켰다. 인도-유럽 언어들(그리스어를 포함해서)과 썬족 언어들(히브리어를 포함하여)은 말하기 수준들이나 정교한 경어를 갖지 않은 아주 다른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성경을 아시아 언어들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초창기부터 이러한 다른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을 다루어야만 했다. 번역자들이 다른 문화간의 중재자들로서 그들의 역할들과 씨름했던 매력적인 예들 중에 몇 가지를 나는 제시할 것이다. 첫째로, 첫 번째 자바어 성경 번역과 적절한 말투 수준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룰 것이고, 그리고 말레이어 성경들에서 대화 형태들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선택 문제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3.1 자바어 말투 수준들: 게리케(Gericke)와, 크로모(Kromo)와 응고코(Ngoko) 말투 수준에 대한 그의 씨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 네덜란드성서공회의 첫 번째 성경 번역자인 독일사람 게리케(J. F. Gericke, 1799-1857)는 자바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한 첫 번째 번역자였다.²¹⁾ 1823년에 그는 성경 언어들과 아랍어와 말레이어 그리고 다른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네덜란드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1827년에 그는 자바에 도착하였으며, 1847년에 자신의 자바어 사전을 출판하였고, 1848년에는 신약을 출판하기에 이른다. 게리케는 정규적으로 그의 번역 팀의 자바인 구성원

21) 3.1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웰렌그레벨(Swellengrebel 1974-78)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들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그에게 자바어를 가르치고 그의 자바어를 교정해 주는데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 자체의 초록을 만들고 점검해 주기도 했다. 판지 포스포웰고(Pandji Poespowilgo) 목사나 마스 프라마디(Mas Pramadi)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다. 바고스 모엣자라트(Bagoes Moedjarat)에 대해 칭찬하는 게리케의 보고서가 네덜란드성서공회 이사회에 도착하자, 이사회는 모엣자라트 목사를 네덜란드성서공회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제안한다.

게리케 또한 계층과 결속(크로모와 응고코)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자바어에 있는 말투 수준들의 존재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썼다. 많은 요소들, 곧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 지위 관계, 그들의 나이 차이, 아는 정도 등과 같은 것들이 자바어에 있는 수준의 선택 영역으로 들어왔다. 성경 원 본문들이 대화를 제시할 때에, 대화자들 간의 계급 차이는 계층과 결속의 말투 수준들의 선택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요 2:3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째로, 게리케는 그것이 크로모(계층) 수준이어야만 한다고 결정한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존경은 절대적으로 크로모를 요구한다.”²²⁾ 그러나 후에 그는 응고코(결속)로 바꾸는데 이것은 그것이 “*vertrouwelijkheid en zachte terechtwijzing*”(친밀성과 부드러운 질책)을 표현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명사의 선택이나 대화의 형태들에서 뿐만 아니라 사전적 항목들, 곧 불변화사들이나 접속사들의 선택에서도 반영되는 자바어의 이러한 의무적인 관계 구분들은 중요한 주석학적인 결정들을 내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바 본문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들보다 더 명확하게 만든다. 성경 본문들의 저자를 위한 응고코 또는 크로모의 선택 또한 흥미롭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그리스어로 ‘*κράτιστε Θεόφιλος*’를 위하여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설의 그리스어 형태는 누가 문서의 수취인이 누가보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훨씬) 높아서 누가로 하여금 크로모(계층)를 사용하게끔 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저서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경우가 덜 분명하다. 우선적으로 게리케는 다른 책들을 위하여 크로모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그 저서들을 위한 독자들이 최소한 높은 지위의 몇 사람을 포함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후에 게리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며, 응고코(결속)가 (언어의 눈에 띄지 않는 기본 형태로서) 더 의미심장한 가능성들을 가지

22) J. L. Swellengrebel, *In Leijdeckers Voetspoor. Anderhalve Eeuw Bijbelvertaling en Taalkunde in de Indonesische Talen*. I (1820-1900) (Amsterdam, Haarlem: Nederlands Bijbelgenootschap, 1978), 80.

고 있으며 크로모(계층)가 성경 저자들의 종속적인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응고코(결속)를 사용하게 한다.

3.2 인도네시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인도네시아 성경들의 2인칭 대명사들과 연설의 형태들

인도네시아의 화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들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국어인 인도네시아어는 그들의 두 번째 언어이다. 예를 들어서, 자바와 롬보크와 발리의 인구를 합친 수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화자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말투 수준들과 공손함과 사회적 계급 조직의 구성 요소들이 필수적인 것은 이 섬들의 첫 번째 언어들에서이다. 자바어와 같은 언어들 of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은 이 언어들 of 화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위강(H. Ugang)과 소실로(D. Soesilo)는 어떻게 인도네시아어와 첫 번째 언어의 상호작용이 공손함, 존경, 대화 수준들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어 성경 번역을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지적한다.²³⁾ 자바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을 생각해 보라. 자바어 크로모 용어인 panjenengan, ‘당신’에 상응하는 정확한 인도네시아어가 없는 까닭에, 자바 인도네시아인들은 존경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Bapak ‘아버지’, Ibu ‘어머니’, Tutan ‘선생님’, 또는 Nyonya ‘여사’ 같은 인사말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어느 자바인도 화자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2인칭의 사람을 부르기 위해 2인칭 대명사인 engkau나 kanu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 engkau와 kanu가 사용될 때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²⁴⁾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인도네시아 표준 성경, Terjemahan Baru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가복음 1장 37절의 문장 πάντες(모든) ζητοῦσίν(찾는다) σε(당신을)을 예로 들어보자. Terjemahan Baru 성경(1987, TB)에서 이 문장은 ‘Semua(모든) orang(사람들) mencari(찾는다) Engkau(너를)’로 번역되어 있다. TB 성경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의 (구문상의) 형태에 가깝게 놔두려고 시도하는데, 다른 주요 형식 번역들과 똑같이 단어 대 단어, 대명사 대 대명사 등과 같이 번역하고, 가능하면 그리스어의 어순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리스어가 이 절에서 2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으

23) Hermogenes Ugang and Soesilo Daud, “Are Honorific Terms of Address Necessary in the Indonesian Bible?” *The Bible Translator* 42:4 (1991), 442-447.

24) *Ibid.*, 444.

므로($\sigma\epsilon$), 인도네시아어 TB는 2인칭 대명사인 *engkau*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의 *guru*인 예수, 곧 그들의 종교적인 선생이며, 그들의 랍비인 분에게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무례하고 불손하게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파푸아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 화자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께 이야기하면서 *engkau*를 사용하는 것은 불손하거나 주의를 끄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성경 그리스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2인칭 대명사들을 사용하는데, 종종 공손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족관계 용어들도 함께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

인도네시아어 성경인 *Kabar Baik*(1985, BIS)는 마가복음 1장 37절을 “*Semua orang sedang mencari Bapak*”(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로 번역하고 있다. BIS역본은 의미 중심이며, 명료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공통언어 번역이다. 자연스러움은 그 대상 청중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에 맞추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 번역의 의도된 청중의 대다수가 결코 종교적 선생이나 지도자를 2인칭 대명사인 *engkau*로 지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IS 번역은 공손하고 존중하는 대화 형태인 *Bapak*(아버지, 선생님)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번역자들이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과 대상 공동체들 사이를 중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도네시아 번역본들의 스키포스(*skopos*)와 기능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 특별한 복잡함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 표준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을 그 언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가 사용되는 방식들에 있어서 중대한 지역적 차이들이 있는 것이다.

3.3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의 세계화: 룯기에 대한 또다른 고찰

미묘한 방식들로, (미국)영어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은 나의 모국어인 네덜란드어의 화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화나 인사말의 형태들, 언급이나 대화에서 개인의 이름들의 역할 등과 같은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좀더 인류 평등주적인 미국식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이 좀더 계급 조직적인 사회를 반영했던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구식 형태들을 훨씬 덜 계급 조직적인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시아 대화 공동체들은 세계화의 동력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특히 미국식 생활 방식의 (어떤) 측면들에 끌리는 것을 느끼는 젊은 화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물론, 그와 같은 영향들이 흡수되고 반응되는 방식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뼈대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 의

부 영향들은 언제나 흡수 과정에서 여과되고 적응된다.

이제 위에서 논의되었던 문단, 룿기 2:19-22의 두 개의 영어 성경과 한 개의 인도네시아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KJV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19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오늘 어디서 수확하고 남은 곡식을 주웠느냐? 너를 돌아본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20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호와와의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가 산 자들에게와 죽은 자들에게 그의 친절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중의 하나이다.’ 21 그리고 모압 여성 룿이 말했다. ‘그가 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젊은이들이 모든 추수를 마칠 때 까지 그들 옆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인 룿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서 사람들이 너를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단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해당하는 혈족 관계 용어들이 히브리어 원문에서와 같이 이 네 구절에서 네 번 사용되는 것과 룿이 모압 여성 룿으로 2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 사회 중심적인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은 CEV에서 자기 중심적인 민족 기술학으로 변형되고 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원문과 킹 제임스 성경이 혈족 관계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19절에서 CEV는 단지 개인 이름들(나오미와 룿)만을 사용하고 있다.

19 나오미가 말했다. ‘너는 오늘 어디서 일했지? 그것이 누구의 밭이었지? 너를 그렇게 잘 대해준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길!’ 그러자 룿이 그녀에게 자신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20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기를!’ 하고 나오미가 응답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를 돌보아주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의 하나란다.’

21 룿이 그녀에게 말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이 그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기를 마칠 때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밭에 머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22 나오미가 대답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나란히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니?’

룻기 전체에서 CEV는 10번 나타나는 시어머니라는 용어 중 8번을 제거해 버렸다. 개인의 부족이나 씨족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사회 중심적인 호칭의 지속적인 사용은 영어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변형되게 된다.

인도네시아어 공통 언어 성경인 BIS는 룻기 2장의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19 그리고 *나오미*가 말했다 ‘어디서 너는 이 모든 것을 얻었지? 누구 밭에서 오늘 일했지? 너에게 너무도 잘 대해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그녀가 곡식을 주운 그 밭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 의해 소유되어져 있다고 대답했다.

20 ‘애야, 저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대해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길! 주님께서는 언제나 산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21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어머니, 저 사람은 그의 일꾼들이 그의 모든 밭을 추수하기를 마칠 때 까지 내가 그들과 곡식을 주울 수 있다고 까지 말했어요.’

22. ‘그래, 아가야’,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네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더 낫다. 왜냐하면 만일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면 그들이 거기서 너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

위에서 논의한 네덜란드어 그리고 영어 공통 언어 성경들과 똑같이, 인도네시아 공통 언어 성경은 히브리어의 사회 중심적인 언급들을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변형 시킨다: 21절에서 동격인 ‘모압 여성’은 삭제되며 히브리어 원문에서 발견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네 번의 언급들 역시 삭제된다.

이제 만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사회 중심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면, 왜 인도네시아 공통 언어 번역은 원문의 사회 중심성을 자기 중심적인 대상 본문으로 변형시키고자 한 것일까?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공통 언어 번역들이, 네덜란드어 공통 언어 번역들과 같이, 모든 공통 언어 번역들의 대모격인 Good News Bible이나 Common English Bible 같은 영어 모범 번역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사실일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어 BIS가 많은 측면에서 영어 모범 번역들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nak”(“아이야, 아가”)와 “Bu”(“어머니”)와 같은 연설의 형태들을 사용에서 그 독립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대답을 제시하고 싶

다. 사회 중심적인 (동양) 대 자기 중심적인 (서양)의 대비는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며 서양과 동양 사회들이 사람과 사상, 음식, 의복 등의 접촉과 교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과 교류는 그 그림을 좀더 역동적이며 복잡하게 만든다. 네덜란드어에서와 똑같이,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미국식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을 따라, 개인 이름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들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이름들의 사용이 피해지고 그 이름들이 Pak과 Bu 같은 공손한 형태들과 결합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도네시아어나 한글 같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작업을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말하기 수준들과 연설의 형태들을 지배하는 규칙들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견할 수 없으며, 대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교육을 받은 도시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나이 많은 여성들보다 미국식 영어로부터 온 평등주의적 규범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와 같은 민족 언어들에 있어서 이것은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들이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의 자바 화자들과 파푸아 화자들 사이에 차이점들), 화자들 사이의 차이들 곧 미국식 영어와 같은 언어들에 다르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생겨난 차이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나이다(Nida)와 네이버(Naber)가 성경 번역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있는 책들을 썼던 20세기 후반기의 언어학은 노ם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사람들과 보편적 특성들에 대한 탐구, 특별히 대부분 구문 영역의 언어 체계의 보편적인 형식적 특성들에 대한 탐구에 의해 지배되어졌다. 20세기의 마지막 무렵에 관심은 언어 체계에서 언어 사용으로, 형식적 특성들에서 기능적 차이들로 옮겨졌다. 학문적인 눈이 형식 구문에 초점을 맞추는 한, 보편적 특성들이 전면에 서게 되지만, 관심이 언어 사용에 기울어지자마자, 언어학적 관습들이 문화적인 차이들을 반영하고 구성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난다. 이러한 관심의 이동은 성경 번역에 대한 학문적인 반영을 위한 중요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성경 본문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문화적인 관습을 반영한다. 동시에 그것들의 대상 언어들은 대상 공동체들

의 문화적 관습과 한데 뒤섞여 있다.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원문의 말하기의 민족 기술학과 대상 공동체들 사이를 중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성경 번역자들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특정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청중들을 위하여 일한다. 번역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중재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 공동체들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인 것이다.